

南北問題에 대한 接近의 視角과 方法에 관한 研究

金 文 瑄*

目 次

- | | |
|----------------------|---------------------|
| I. 問題의 提起 | 3. 南北關係의 社會構成體論 |
| II. 問題의 歷史的 性格 | IV. 問題點과 解決의 方向 |
| III. 南北問題에 대한 理論的 接近 | 1. 國際的·國內的 不平等의 聯關性 |
| 1. 南北關係의 歷史理論 | 2. 自立을 위한 開發戰略 |
| 2. 南北關係의 經濟學 | V. 結 論 |

I. 問題의 提起

오늘날 世界經濟는 保護主義라는 큰 물결에 휘말리고 있다. 30年代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現在의 保護主義는 先進國 經濟成長의 둔화, 先進國들 간의 經濟力의 再編成, 新興工業國의 추적 등에 起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世界가 當面하고 있는 主要課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解決해야할 重要한 또 하나의 經濟問題에 관한 課題가 있다. 즉 南北問題가 그것이다. 南北問題라는 用語가 처음으로 使用된 것은 1959년이었다. 當時까지만 해도 世界經濟秩序問題를 論議할때는 東西關係가 主로 論議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過去 殖民地들이 大部分 獨立하게 되어 그들의 發言權이 強化됨에 따라 發展途上國 이라는 第三勢力을 無視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날 發展途上國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貧困의 問題라 할 수 있다. 貧困의 基準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基準이 一般的으로 使用되어지고 있다. 첫째는 貧困의 基準을 所得에 依存하는

* 貿易學科 教授

方法이다. 即 一人當 所得 (GNP)에 의해서 貧困의 程度를 分類하는 方法이다. 둘째는 營養攝取量에 의한 基準이다. 價格에 의해 表示되는 所得水準이 經濟生活의 實態를 精確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反省에서 나온 基準이다. 이 基準은 生命을 維持하는데 불가결한 營養物의 攝取量을 基準으로 하여 貧困의 程度를 判定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日當 칼로리나 단백질 섭취량에 유아사망율이나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絶對的인 貧困線을 設定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 정부의 기준에 의하면 貧困線 以下의 住民은 3억 276萬 人에 달한다고 한다.¹⁾ 셋째는 生活資料 基準이다. 이것은 生命을 維持하는 것 만으로는 人間이 生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營養섭취량 이외에 生活에 必要한 諸資料를 포함한 기준이다. 적당한 食량, 주거, 의복, 가구 등 개개의 家庭에 필요한 것과 飲料水, 公的輸送, 醫療, 教育, 文化施設 等 社會的인 서비스가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 하면 南쪽 世界의 37%인 7.7억 人이 人間의 基本的 必要를 充足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²⁾

이상에서 貧困의 尺度가 되는 3가지 기준을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어느 기준에 의하던 간에 南 쪽 國家의 大部分은 貧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先進國 즉 北쪽 國家 들과의 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南쪽 國家의 貧困은 왜 생겨났으며 그것이 더 심화되고 있는가. 다시말하자면 南쪽 國家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北쪽 國家 즉 先進國에 그 책임이 있는가 하는 점에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南쪽의 貧困問 題는 그들 國家의 責任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先進國側에 더 많은 責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重商主義以後 現在의 發展途上國의 大部分은 植民地化되어 政治的, 經濟的으로 從屬化 되었으며, 2次世界大戰後에 植民地들이 獨立하여 政治的으로는 獨立했다고는 하 나, 經濟的인 面에서는 여전히 從屬的인 關係에 놓여 있어 이것이 發展途上國의 貧困을 더 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見解가 많다.

本 論文에서는 南北關係에 대한 歷史理論, 南北關係의 經濟理論을 살피고 開發途上國이 先進國의 經濟的인 從屬關係에서 벗어나서 貧困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戰略을 모색해 보 고자 한다.

1) アジア經濟研究所; 「發展途上國 直接借款推進 基礎調査報告書(インバ)」, 1982, p.69.

2) 西川潤著; 「貧困—21世紀の地球」, 岩波書店, 1983, p.29.

Ⅱ. 南北問題의 歴史的 性格

16世紀에 出現한 重商主義와 이에 이은 18世紀 中葉에 西歐의 一角에서 近代資本主義가 成立한 以後의 世界經濟의 歷史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주로 地球의 南半球에 位置하고 있는 地域의 諸民族이 차례 차례로 列強의 諸民族에 의하여 植民地化 되거나 從屬化 되어온 歷史였다. 北半球에 位置하고 있는 大多數의 諸民族이 오늘날 運轉한 生活을 할 수 있는 것은 南쪽 國家 즉 發展途上國의 희생과 빈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過去 5世紀에 가까운 동안 人類의 歷史가 남긴 오늘날의 世界經濟의 양상은, 經濟的·社會的인 諸指標에서 南北間의 顯著한 發展水準의 格差라 할 수 있다.

表1 南北間 格差의 諸指標

	人 口 (100萬) 1980年央	1人當り GNP		1人當り 에너지 消費量 (石炭換算 kg) 1979	1日1人 當り必要 カロリー 充足率 ⁶⁾ (%) 1977	出生時 平均壽 命 ⁷⁾ (年) 1980	成 人 識字率 ⁸⁾ (%) 1977
		ド ル 1980	年平均 增加率 (%) 1960~80				
低所得 33 カ國 ¹⁾ (うち最低 5 カ國)	2,160.9	260	1.2	421	97	57	50
ブ ー タ ン	1.3	80	- 0.1	...	90	44	...
チ ヤ ド	4.5	120	- 1.8	22	72	41	15
バン グ ラ デ シ ュ	88.5	130	(.) ⁹⁾	40	...	46	26
エ チ オ ピ ア	31.1	140	1.4	2.1	78	40	15
ネ バ ー ル	14.6	140	0.2	13	89	44	19
中所得 63 カ國 ²⁾	1,138.8	1,400	3.8	965	107	60	65
高所得石油輸出國 ³⁾	14.4	12,630	6.3	2,609	...	57	25
市場經濟工業國 ⁴⁾ (うち主要工業國)	714.4	10,320	3.6	7,293	131	74	99
イ タ リ ア	56.9	6,480	3.6	3,312	136	73	98
イ ギ リ ス	55.9	7,920	2.2	5,272	133	73	99
日 本	116.8	9,890	7.1	4,048	126	76	99
ア メ リ カ	227.7	11,360	2.3	11,681	133	74	99
西 ド イ ツ	60.9	13,590	3.3	6,264	127	73	99
非市場經濟工業國 ⁵⁾	353.3	4,640	4.2	5,822	137	71	100

(注) 1) 1人當りGNP 410ドル以下の國で, 低所得社會主義國(カンボジア, ラオス, ベトナム, 中國)を含む 2) 中所得社會主義國(モンゴル, アルバニア,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を含む 3) リビア, サウジアラビア, クウェート, アラブ首長國連邦 4) 西側先進 19カ國 5) 東側先進 6カ國 6) FAO推定による必要カロリー量の充足率 7) 國民全體に該當する死亡原因を考慮して, 新生兒が生存するとみられる年數 8) 15歳以上の成人についての數字 9) 0.5以下の數値

(資料)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2, より作成.

(出處): 本多健吉編著, 南北問題の現代的 構造, 日本評論社, p.2.

表 I 을 보면, 世界人口의 약 半을 占하고 있는 低所得國 그룹의 1人當 GNP의 水準은 先進資本主義國 水準의 3%에 지나지 않는다. 1人當 에네르기 消費量이나 필요한 칼로리의 充足率 等の 經濟的인 指標와 평균수명이나 成人識字率 等の 社會的인 諸指標를 보면, 世界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와 가장 가난한 나라의 格差는 놀랄만 하다.

이러한 狀況에 대하여 R.S. MacNamara 前世界銀行總裁가 1972年 UN人間 環境會議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比喩는 인상적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地球를 宇宙船地球號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될 일은, 宇宙船의 승객중 4분지 1이 호화로운 一等船室에서 快適함을 즐기고 있을때, 나머지 4분지 3의 승객이 三等室에 틀어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宇宙이전 뛰건 즐거운 여행이 될리가 없습니다. 三等船 승객이 이 施設을 보다 좋게 할 수 있는 方法이 있다는 생각이 났을때는, 宇宙船은 한층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³⁾

先進工業世界와 發展途上世界間에 現存하는 國家間 經濟格差와, 이에 의해서 發生하는 國際間的 여러가지 政治的·經濟的인 갈림이, 오늘날 一般的으로 南北問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부유한 北側에 의한 빈곤한 南側의 諸國에 대한 援助의 必要性이 強調되어 지고 있다.

日本の 代表的인 國際經濟專門家이기도한 大來佐武郎 前外相을 主任으로 하는 經濟審議會의 한 報告書는 「戰後 今일에 이르기까지 經濟成長에 있어서, 先進國과 發展途上國間에 큰 格差가 생기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南北問題이며, 이러한 問題에 대처하기 위하여 先進國側의 援助에 의한 發展途上國經濟의 自立的인 發展을 돕는 것이 經濟協力이다」⁴⁾ 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大阪市立大學의 本多健吉教授는 問題認識에 問題가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先進國의 援助에 의하여 빈곤한 諸國의 經濟發展을 돕자고 하는, 人道主義的인 面을 가지고 있는 그 自體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全世界의 諸民族이 共有하고 있는 이 宇宙船地球號에서 왜 이러한 格差가 發生했으며 계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그것이 重要한 問題로 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科學的으로 解明하려는 努力없이, 問題를 人道主義的인 面에 치우친다는 것은 問題의 진정한 성격과 所在를 不明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⁵⁾

3) 環境廳 國際課 編譯; 「いの地球を守るために — 72年 國連人間環境會議の記録 —」, 楓出版社, 1972, p.109.

4) 經濟審議會 經濟協力委員會編; 「國際協力の新段階」, 大藏省印刷局, 1970, p.1.

5) 本多健吉編; 「南北問題の現代的 構造」, 日本評論社, 1983, p.3.

南北問題라는 用語의 탄생과 그것이 갖는 歷史的인 性格을 살려 보기로 한다. 이 用語는 英國의 로이드銀行會長인 O. Frank 가 1959年末에 행한 講演 「새로운 國際의 밸런스 — 西方世界에 대한 挑戰 —」에서, 西方先進世界는 從來의 東西밸런스의 維持라는 課題에 더하여, 南北밸런스의 維持라고 하는 새로운 挑戰課題에 直面하고 있다고 말한데서 연유하고 있다. 그후 이 用語는 西方世界の 政治·經濟指導者나 저널리스트 등이 즐겨 사용한 것이 歷史的 背景이다. 그러면 南北問題에 관하여 觀心을 가지게된 原因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渡邊太郎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第二次大戰後 先進諸國이 南北問題에 눈을 떠서, 問題의 解決에 本格的으로 나선것은, 戰災에서의 復興이 一段落되어, 經濟가 成長軌道에 들어서기 始作한 1955年 以後의 일이다. 先進國이 發展途上諸國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것이 直接的인 要因이다.」⁶⁾

그러나 이것은 問題發生의 二義的인 背景을 指摘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1950年代 後半에서 60年代 初期는, 西方先進世界の 復興이 完了되었다는 것 이상으로 重要的인 歷史的인 變化가 있었던 時期이다. 그리고 그 變化는 近·現代의 世界史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資本主義 世界經濟體制의 主要한 特徵이었던 殖民地 支配體制의 붕괴가 屢연한 歷史的 現實로서 나타났다. 最大의 殖民地大陸인 아프리카에서는 한꺼번에 18개의 舊殖民地가 獨立되었다. 이들 新興諸國이 大量으로 加盟하게된 國聯總會가, 어떠한 形態 및 表現을 불문하고 植民主義를 급속히 그리고 무조건 終結할 必要가 있다고한 殖民地 獨立 付與宣言을 採擇한 1960年은 하나의 커다란 전기라 할 수 있다. 第二次大戰 直後에 아시아와 中東에서 始作된 殖民地獨立의 물결은 全아프리카大陸과 카리브海 및 그 沿岸의 殖民地諸國에 波及되었고 南美洲의 舊從屬諸國 또한 獨立하므로 해서 政治的 主權을 비약적으로 強化했다. 南北問題가 활발하게 論議되게 된것은 앞서와 같은 國際情勢의 變化라는 背景에서 연유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南北間 經濟格差에 대한 問題意識이 앞서 말한 渡邊氏가 말한것 처럼 先進諸國의 自發的인 自覺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南北問題 解決의 重要性을 強調하기 始作한 것은 20年 남짓하지만, 先進世界와 發展途上世界間의 富의 不平等은, 지난 2世紀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커다란 格差가 持續되어져 왔다.

오늘날의 世界史的 段階를 脫殖民地時代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段階는, 단지 重商主義時代부터 오늘에 이르는 期間뿐만 아니라, 強力한 民族이 弱小民族을 政治的으

6) 渡邊太郎; “南北問題の回顧と展望”, 「季刊現代經濟」 第25號, 1976, p.6.

로 支配하여 富를 收奪해온, 人類의 全歷史를 통하여 본다면 하더라도 획기적인 方向을 나타내고 있는 段階라 할만하다. 南北問題의 基本的인 性格은, 이러한 段階에서, 이제야 國際政治의 앞 무대에 등장한 發展途上國이, 國際經濟에서 不平等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異議를 強力히 提起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不平等이 發生하는 것은 先進世界 特別히 發展途上世界의 經濟에 압도적인 影響을 미치고 있는 西方先進世界의 經濟的인 運動原理에 從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主張이 世界經濟運營原理의 根本的인 變革을 強要하고 있는데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森田桐郎氏가 「後進國의 自立的 發展의 立場에서 要求되는 世界經濟編成의 問題를 — 거기에는 資本主義·社會主義·後進國의 複雜한 對立과 相互浸透의 諸關係를 포함해서 — 南北問題라고 規定한다.」⁷⁾ 라고 한것은 確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問題되는 것은, 종종 自明한 것으로 前提되어지고 있는 發展途上國의 自立的 發展이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 世界經濟의 運營原理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自立成長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로 一民族이 國民經濟의 再生産 條件을 스스로 掌握하고 있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것은, 經濟主體의 側面에서 본다면 國民經濟의 主要 再生産 條件을 民族資本이 掌握 規制하는 것이며 經濟地域이라는 側面에서는 民族이 支配하는 政治領域內에서 相對的인 自給自足體系를 實現하는 것이다. 둘째로 自立經濟의 構造는 國民經濟의 再生産 過程에서 自己完結的인 再生産의 메카니즘을 定着化시키는 構造다. 이것은 國民經濟가 外部의 介入없이 즉 外國資本이나 外國貿易의 擴大를 不可缺의 條件으로 하지않고 再生産을 維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外國資本이나 外國貿易의 擴大없이도 再生産이 可能한 構造를 創出하는 것을 意味한다. 셋째로 自立經濟는 國民經濟內에서 생기는 모든 經濟活動의 結果가 國民的으로 擴散되는 메카니즘을 確保하는 것이라야 한다. 自立經濟는 單純한 經濟構造나 經濟諸量의 問題가 아니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통해서 民族構成員의 生活을 國民經濟의 成長과 直接的으로 關聯을 갖도록 하는 것이 重要한 것이다. 이러한 擴散메카니즘의 確保는 企業 및 産業間의 關聯을 深化시키므로써 생기는 再生産의 內包化에서 이루어진다.

世界經濟의 運營原理에 대해서 森田氏는 國際的 組織化의 3개의 原理로서, 資本主義의 틀 안에서 先進資本主義世界에 의한 强者의 組織化原理, 發展途上世界가 追求하려고 하고 있는 弱者의 組織化原理와, 社會主義에 의한 世界의 組織化原理를 들어, 오늘날 世界經

7) 森田桐郎; 「新訂南北問題」, 日本評論社, 1972, p.8.

濟의 組織化를 推進하고 있는 社會主義의 힘이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前二者의 組織化原理에 의해서 發展途上國의 自立的 發展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경우에는 弱者에 의한 組織化原理가 社會主義에 의한 組織化原理에 轉化할 可能性이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森田氏가, 現實의 社會主義가 아직 未成熟한 一國主義의 社會主義에 지나지 않고 諸國家間의 對立(특히 中蘇對立)을 內包하고 있을뿐 아니라 새로운 發展途上國의 自立的 發展을 保證할 수 있는 世界經濟의 再編成에 積極的으로 介入할만한 力量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⁸⁾

實際로 1979年의 數字를 보면, 發展途上國의 輸出과 輸入에서 占하는 東方世界와의 比率는 겨우 3.5%와 5.1%에 지나지 않으며, 時系列로 본다면 하더라도 65~66年 平均과 75~79年의 平均은 前者가 5.6%에서 4.6%, 後者가 8.1%에서 5.1%로 저하하고 있다. 援助面에서 보면 東方의 2國間 政府援助(約束額)는 53~73年 平均이 9억 달러에서 74~79年 平均이 31억달러로 增加하기는 했지만, 後者의 期間平均에서 DAC 諸國의 2國間 政府援助(증여와 준증여)額 63억달러는 말할것도 없고, 美國의 2國間 政府援助(차관을 포함)에도 못 미치고 있다.⁹⁾

社會主義世界內에도 低所得그룹의 범주에 分類되는 나라들이 있으며 이들 나라들 중에는 第三世界의 一員으로 있으려고 하는 中共, 非同盟諸國首腦會議의 一員으로서 非社會主義 發展途上諸國과 協同步調를 취하려는 쿠바같은 나라들도 있다. 물론 이들 나라가 非社會主義諸國과는 基本的으로 다른 國民經濟의 運營原理를 채택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社會主義 內部에서의 富의 國家間 格差의 存在를 非社會主義世界의 그것과 같은 次元에서 論할수는 없다. 허나 東方世界의 오늘날의 狀況에서 본다면, 社會主義의 世界經濟 編成原理가 全 發展途上世界가 지향하는 編成原理에 影響을 줄려고 하면, 現在로서는 援助나 貿易의 增大라는 經濟的인 影響력으로서가 아니라, 自體世界 內部에서 어떻게 國家間 對立을 除去해서 諸國民의 自立에 기초를 둔 진정한 互惠平等의 經濟關係를 구축할 길을 찾는것 이외는 다른 方法이 없을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南北問題는 量的이나 質的으로 여전히 脫殖民地時代의 資本主義世界體制 內部의 問題이며 또한 發展途上世界가 指向하고 있는 經濟的 自立化에 대한 要求가 西方先進世界가 지금까지 維持해온 組織化原理와 對立해 온데서 나온 問題라 할 수 있다.

8) 森田桐郎; 「前掲書」, pp.142-150.

9) 本多健吉編; 「前掲書」, p.6.

그러나 國際的 不平等의 除去와 發展途上國의 自立的 發展을 可能케 하는 國際經濟 再編成을 위한 확고한 길은 아직도 열려있지 않다. 西方先進世界로서는, 發展途上世界에 의 한 異議提起에 의하여 資本運動의 國際的인 展開를 크게 制約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面에 서 하나의 위기가 있다. 한편 森田氏가 말하는 社會主義에 의한 世界經濟組織化의 方法 또 한 東方世界内部에서 조차도 모색단계에 불과하다. 그런 意味에서 오늘의 世界는 共通의 問題를 안고 있다. 世界는 南쪽의 自立的 發展과 國際的 不平等을 除去할 수 있는 확실한 方法을 찾지 않으면 안될 問題를 안고 있다. 이러한 問題를 提起해야 할 主役은 말할것도 없이 新興의 發展途上諸民族인 것이다.

Ⅲ. 南北問題에 대한 理論的 接近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南北問題에 대한 一般의 關心은 대략 20여년의 歷史에 불과해 서, 이 問題에 대한 理論的인 接近은 아직 體系化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過去에 社會科 學上의 革新이 그러했던 것처럼, 現實의 歷史的인 變化에 觸發되어, 現代社會學의 各 分 野에서 이 問題를 積極的으로 研究하기 始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歷史理論, 經濟理論, 社會構成體論 分野에 대한 研究中 代表的인 것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南北關係의 歷史理論

南北關係를 意織한 理論的 接近方法의 하나는, 歷史學 分野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先 發國과 後發國의 過去의 歷史的인 經驗에서 一定의 發展史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 해서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經濟成長의 諸段階”에 나타나고 있는 W.W. Ros- tow의 見解일 것이다.

그에 의하면 先發國의 發展은, 段階的으로, 傳統的 社會, 離陸을 위한 先行條件期, 離陸 期, 成熟에로의 前進期, 高度大衆消費時代를 거치고 있으며, 모든 後發諸國은 이 5개 段 階의 어딘가에 位置하고 있어서 停滯的인 傳統社會(그는 中國의 諸王朝, 中東 및 地中海 文明, 中世유럽의 中世를 모두 뉴턴以前의 世界로 해서 이 歷史段階에 一括하고 있다)로 부터 이탈하거나 차례 차례로 보다 高次的인 段階로 移行해 왔으며 또한 移行하고 있다. 따라서 特定社會의 發展이 늦어지는 것은 地理的 條件·自然資源·貿易의 可能性·社會 및 政治的 特質때문에 近代科學의 成果를 導入해서 수확체감을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複利的인

成長을 이룩하는데 失敗했기 때문이다.

또한 近代史에서 一般的인 경우를 보면 先行條件段階는 內發的으로 일어나지 않고 보다 進보한 社會에 의한 外部로부터의 浸透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發展途上諸國은 政治的 獨立에 의한 有效한 中央集權의 國民國家의 建設과 더불어 植民地期에 部分的으로 進行되고 있던 先行條件期로부터 점차로 離陸過程을 거치고 있다.

Rostow는 이러한 歷史觀에서, 原著副題에서 “하나의 非共產黨宣言”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는 바와같이, 共產主義를 資本主義보다 高次的인 段階라고 하는 마르크스主義 歷史觀을 否定하는 것을 主目標로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現代의 南北關係를 明確히 意識하면서, 南쪽 發展이 늦어진 理由를 內部的인 自然的·社會的 條件에 歸着시켜, 先進世界의 浸透를 發展의 促進하는 作用으로 파악해서, 現代 發展途上世界와 先進世界와의 格差를 단지 時間的인 前後關係에 지나지 않는다는 理論을 提示하고 있다 할 것이다.

歷史發展에 관한 “單線的 發展史觀”이라고 할 수 있는 以上の 理論에 대해서, Alexander Gerschenkron의 “複線的 發展史觀”이라는 것이 있다.¹⁰⁾ 19世紀 後發資本主義國인 독일과 러시아를 예로들어 그는 이들 나라들이 보다 進보한 英國과 歷史的으로 並存했기 때문에 先進國과 對항하기 위해서 先行者와는 다른 類型의 發展을 수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理論에서도 現代의 南北關係에 대해 깊은 問題意識을 엿볼수 있다. 즉 한편에서는 新興發展途上國이 國家에 의한 強力한 經濟介入을 통해서 重化學工業에서 代表되는 近代의 生産諸力을 급속히 導入하려는 것을, 19世紀 後發資本主義國의 經驗에 비추어, 하나의 歷史的인 必然性을 갖는 것이라고 評價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社會主義革命을, 內發的 發展이 극단히 뒤떨어졌던 이 나라가, 급격히 先進 西유럽과의 接觸을 시작했기 때문에 발생한 격심한 社會的 緊張의 歸結로 보고 있다. 이 部分은 극히 政治的인 것으로서, 現代發展途上國은 이를 教訓으로 삼아 國內의 社會改革 특히 農地改革을 積極的으로 推進함으로써 社會主義化를 회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複線的 發展史觀”도, 發展途上國이 先行者와는 다른 發展類型을 걸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現在의 先進資本主義諸國과 類似하게 된다는 點에서, “單線的 史觀의 하나의 變種”이라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2개의 發展史觀에 대해서 南北關係에 관한 第三의 것은 “兩極的 發展史觀”이며 이 史觀은 歷史解析과 展望에 있어서 前二者와 날카롭게 對立하고 있다. 이것은 Andre Gunder Frank가 提起한 歷史觀이다. 이 史觀은 發展途上世界의 形成史와 이 세계

10) 本多健吉, 「低開發經濟論의 構造」, 新評論, 1970, 第1章 2 參照

가 지금까지 놓여져온 世界的 位置를 照明하면서, 그러한 視角에서 近·現代의 世界史的 發展을 再解析할려는 것이다. 11)

이 史觀에 의하면 發展과 低開發은 단지 時間的으로 前後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16世紀 重商資本主義 이래의, 資本主義의 世界的 展開이라고 하는 同一한 銅錢의 表와 裏의 關係에 있다. 低開發은 中心資本主義의 世界的 展開에 의해 아주 새로이 創造된 것으로서, 오늘날 先進世界의 단순한 과거의 모양인 低開發이 아니다. Frank는 라틴아메리카 世界的 歷史에 의거하여, 거기에서 이룩한 약간의 發展 = 工業化는 世界戰爭期나 世界恐慌期에 中心資本主義와의 關係가 단절되었을때 생긴 것이며, 關係의 回復과 더불어 또다시 低開發의 發展이 發生했다고 하여, 發展途上國이 진정한 발전 = 工業化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中心部와 단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理論은 새로운 南北關係 理論이기도 하며 또한 지나친 單純化와 理論的인 素朴함을 가지고 있다. 이미 소개한 것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低開發의 發展”은 具體的으로 어떠한 狀態를 意味하는 것인가? 오늘날 中心資本主義와 政治的·經濟的으로 깊은 關係를 맺고 있는 一部 發展途上國(新興工業諸國)에서 급속한 經濟成長과 工業化가 이루어지고 있는 現實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中心資本主義와의 단절에 의한 진정한 發展의 具體的인 像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 理論이 갖는 매력은, 西歐先進世界의 토양에서 자라난 既成社會科學이 非유럽世界의 問題를 불순물이라 하여 理論體系에서 버릴 것인가 아니면 기껏해야 前二者의 發展史觀과 같이 時間과 더불어 西歐世界에 類似하게 될 것이라고 想定하는데 反해, 非유럽 “低開發” 世界에 대한 理論構築을 前面에 내세운데 있다 할 것이다.

2. 南北關係의 經濟學

一定的 歷史觀은 具體的 現實의 움직임에 의해서 檢證된 經濟理論에 의하여 뒷받침 될때 비로소 확고한 歷史理論으로서 定立된다. 南北問題가 前面에 나온 오늘의 歷史的 段階에서 第三者의 立場에서 본다면, 非유럽世界의 分析에 不明確한 部分을 남겼다고는 할지라도, 마르크스의 理論體系는 當時 主要한 問題였던 西유럽世界가 걸어야할 運命—共同體 社會의 解體와 近代市民社會의 成立의 必然性—을 그 社會에 作用하는 經濟的 運動法則의 理論的 解明을 통해서 뒷받침된 限에서는 하나의 歷史理論의 定立이라 할 수 있다.

11) A.G. Frank · 大崎正治他譯; 「世界資本主義と低開發」, 柘植書房, 1976, 第1部, 第2部1章 參照

그러나 마르크스의 歷史理論을 능가한다고 宣言하는 Rostow나 Gerschenkron의 歷史觀은 特別한 經濟理論에 立脚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先進世界의 歷史의 經驗의 類推의 適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反해서 Frank는 그의 歷史觀에 대해서 一定의 經濟理論의 定立을 目標로 하고 있다. Paul Baran의 獨占資本主義下에서의 “潛在的 經濟剩餘”와 “現實的 經濟剩餘”의 乖離現象에 의한 經濟的 停滯의 說明에 의거하면서, 中心部에 의한 “經濟剩餘의 收奪—流用”이 周邊部에서의 兩剩餘의 乖離와 거기에서의 停滯를 유도하려는 理論이다.

一部分의 論者들은 마르크스의 歷史理論을 능가한다고까지 評價되고 있는 그의 理論體系는 經濟理論의 으로도 아직 素朴한 段階에 있다. 그는 어떤 發展段階에서 中心國의 經濟構造가 아무리 경쟁적이라 할지라도 世界資本主義體制 全體와 그 周邊 衛星國의 經濟構造는 資本主義發展史를 통해서 볼때 언제나 高度로 獨占의 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中心部諸國이 衛星諸國에 대한 收奪을 資本主義 歷史에서 一貫되어온 獨占構造와 獨占力을 가지고 說明하려 하고 있다.¹²⁾ 이 경우 그는 生産—流通—分配에 대한 諸關係의 內容이나 그 變化에 의한 形態變化는 考察 밖에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理論의 重要性을 否定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國際間的 經濟的 不平等性의 發生에 카니즘을 解明하기 위한 經濟理論으로서는 Raúl Prebisch와 H.W. Singer의 理論이 있다. 이것은 Frank 理論에 先行하는 보다 精緻한 研究로서, 一次產品交易條件의 惡化를 통한 周邊國 貿易利益의 減少로 인한 經濟成長의 制約을 理論的·實證的으로 규명하려는 것이다.

E. F. Heckscher = B. Ohlin의 “要素價格均等化 命題”에 대해서, 最近 數十年間 國際間的 經濟的 不平等이 增大해서, 最近에는 점점 國際政治의 긴급한 實際的 關心事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國際貿易理論이 諸國間的 要素價格이나 所得이 점진적으로 平等化를 가져오는 傾向이 있음을 強調하는 方向으로 發展한 것은 不可思議한 일이라고 指摘해¹³⁾ 南北間的 貿易이나 資本移動은, 만약 自由로운 市場諸力의 作用에 맡긴다면, 國際間 格差를 擴大하는 效果밖에 없다고 主張하는 Gunnar Myrdal도 이러한 先行者 中的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Frank 이후, 資本의 國際間 完全한 移動性과 國際的 均衡利潤率의 成立 및 勞動의 國際的 不移動性 즉 賃金率의 國民的 相違를 前提로 해서, 高賃金國에 의한 低賃金國의 價

12) A. G. Frank ; 「前掲書」, pp.33-34.

13) G. Myrdal·小原敬士譯 ; 「經濟理論と低開發地域」, 東洋經濟新報社, 1959, p.181.

值收奪을 論證하려고 한 Arghiri Emmanuel 을 出發點으로 해서, 그 理論의 보다 緻密化를 도모하려는 Samir Amin, Christian Palloix 等の 이른바 “新國際 不等價 交換論”이 展開되어지고 있기도 하다.

3. 南北關係의 社會構成體論

이 接近의 基本的 特徵은 前述의 純經濟理論의 接近이 捨象했거나 혹은 暗默的으로 前提하고 있는 “國家” 내지는 上部構造要素가 理論의 前面에 등장하는 것이며 理論의 領域은 廣義의 經濟學의 領域에 속한다.

構成體論의 基本概念은 어떤 社會의 一定的 生産樣式——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編成樣式——이 그 生産樣式을 維持하기 위한 上部構造를 獲得했을때, 그 生産樣式에 基礎를 둔 社會가 比較的 長期에 걸쳐 安定된 編成體로서 定立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現實社會는 반드시 하나의 生産樣式에 의해 成立되는 것이 아니고 낡은 生産樣式이나 새로운 生産樣式的 萌芽가 複合的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生産樣式만을 基礎로하는 經濟的 社會構成體는 觀念的 產物에 지나지 않으며, 現實은 하나의 生産樣式에 알맞는 上部構造——法的·文化的·이데올로기의 要素——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 非支配的 生産樣式이 支配的 生産樣式에 從屬的으로 結合하고 있는 社會構成體이거나, 오늘의 發展途上世界에서와 같이 舊來의 上部構成要素가 解體되고 새로운 上部構造要素에 의한 하나의 過渡期를 經過하고 있는 社會이다.

南北關係論 혹은 “中心部——周邊部”關係論에 이 構成體論的 視點을 導入한 것은 Amin이다. 그는 Frank의 歷史觀을 構成體論的으로 번역해서, 近·現代의 世界史에서 일어난 것은, 以前의 比較的 類似했던 “前資本制의 構成體”에서, 한편에서는 “中心資本主義構成體”로, 다른 한편에서는 “周邊資本主義構成體”로 移行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再構成體의 相違는 前者에서는 資本制 生産樣式이 排他的으로 되어 오로지 그에 專念하는 傾向이 있는데 反해서 後者에서는 資本制 生産樣式이 外部로 부터 導入되어 外國市場에 結合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專念하려는 傾向이 없고 支配的인 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즉 “周邊資本主義 構成體”는 生産樣式의 異種 混合性을 特徵으로 하고 있어 그 支配的 生産樣式이 外國市場에 基礎를 두는 限 결코 “中心資本主義構成體”로 移行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⁴⁾

14) S.Amin·野口祐他譯; 「世界資本蓄積論」, 柘植書房, 1979, pp.40-41.

S.Amin·野口祐他譯; 「周邊資本主義構成體論」, 柘植書房, 1979, p.204.

앞서의 構成體의 基本概念에서 說明한 上部構造要素가, Amin의 “周邊資本主義構成體”論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이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Amin은 生産諸樣式의 異種混合性에 “周邊資本主義構成體”의 基本的인 特徵을 求하면서도 上部構造要素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構成體論의 基本概念에 따라서 이 問題를 追求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大端히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殖民地期에 生産諸樣式의 異種混合性을 長期에 걸쳐 維持해온 殖民地 統治機構와, 殖民地의 社會·産業構造와의 相互規定關係, 換言하면 殖民地期의 上部構造와 下部構造와의 特殊한 接合을 明確히 할 수 있는 方向이 열린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殖民地體制 崩壞에 의해서 民族國家라는 새로운 政治構造를 갖추게 된 現代 發展途上國의 上部構造와, 殖民地時代의 遺産으로서 물려받은 下部構造間에 극심한 矛盾과, 새로운 上部構造의 作用에 의해서 發生하고 있는 어떤 生産諸樣式의 異種混合性의 急激한 溶解現象, 거기에서 생기는 社會的·經濟的 緊張關係의 增大라고 하는, 發展途上國 內部的 變動 過程도 理論적으로 解明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現在까지의 國際政治의 發展段階에서, 國際經濟關係와 國內經濟關係를 媒介하는 고리는, 對外的 機能과 對內的 機能을 겸비하고 있는 國家라는 극히 自明한 事實을 表面化시킨다는 점이다. 한 社會內部的 經濟的인 運動法則을 原理論적으로 考察하는 경우에 우선은 國家를 捨象할 수 있다. 그러나 國際貿易이든 國際資本 移動이든 南北關係든, 國際經濟關係를 考察의 主對象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國家가 表面化되지 않을 수 없다. 이 “國家”는 그 內的 社會編成의 樣式을 總括하며 그 要請에 의해서 對外 諸政策을 展開한다. 따라서 國際的 關係에서 생긴 變化는 이 “國家”를 媒介로 해서 內부에 浸透한다.

IV. 問題點과 解決의 方向

1. 國際的·國內的 不平等의 聯關性

지금까지의 南北問題論의 大部分은 南北國家間의 國際的 不平等 構造의 解明과 그 是正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Amin의 構成體論을 실마리로 하여 國際的·國內的 不平等의 聯關性에 視角을 돌려 考察해 보기로 한다. 表2는 이러한 現象을 概觀하기 위한 것이다.

表2 家計階層別所得配分状況

(単位: %)

	1人當りGNP 1980年 (ドル)	家計所得順位による家計グループの家計シェア			
		調査年	下層40% の家計(A)	上層10% の家計(B)	(B) + (A)
発展途上國					
アジア					
バングラデシュ	130	1973-74	18.2	27.4	1.5
ネパール	144	1976-77	12.6	46.5	3.7
インド	240	1975-76	16.2	33.6	2.1
スリランカ	270	1969-70	19.2	28.2	1.5
インドネシア	430	1976	14.4	34.0	2.4
フィリピン	690	1970-71	14.2	38.5	2.7
韓国	1,520	1976	16.9	27.5	1.6
マレーシア	1,620	1973	11.2	39.8	3.6
香港	4,240	1980	16.2	31.3	1.9
アフリカ					
マラウイ	230	1967-68	21.5	40.1	1.9
タンザニア	280	1969	16.0	35.6	2.2
ケニア	420	1974	8.9	45.8	5.1
ラテンアメリカ					
ペルー	930	1972	7.0	42.9	6.1
コスタリカ	1,730	1971	12.0	39.5	3.3
パナマ	1,730	1970	7.2	44.2	6.1
ブラジル	2,050	1972	7.0	50.6	7.2
メキシコ	2,090	1977	9.9	40.6	4.1
チリ	2,150	1968	13.4	34.8	2.6
アルゼンチン	2,390	1970	14.1	35.2	2.5
ベネズエラ	3,630	1970	10.3	35.7	3.5
トリニダード・トバゴ	4,370	1975-76	13.3	31.8	2.4
先進工業國					
イタリア	6,480	1977	17.5	28.1	1.6
イギリス	7,920	1979	19.7	23.8	1.2
日本	9,890	1969	21.0	27.8	1.3
カナダ	10,130	1977	14.5	26.9	1.9
アメリカ	11,360	1972	15.2	26.6	1.8
オランダ	11,470	1977	21.8	22.1	1.0
フランス	11,730	1975	16.4	30.5	1.9
ノルウェー	12,650	1970	19.2	22.2	1.2
デンマーク	12,950	1976	20.0	22.4	1.1
スウェーデン	13,520	1979	20.0	21.2	1.1
西ドイツ	13,590	1974	17.9	28.8	1.6

(資料)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2, Annex, Table 1, 25より作成
(出處): 本多健吉編著; 前掲書, p.15.

이 表에 나타난 數値는 많은 推定值를 포함하고 있어 반드시 만족할만한 것이 아니며, 또한 發展途上諸國의 數字의 不規則한 不平等性의 相違는 1人當 所得水準의 高低에 一意的으로 연관시키기 보다는 各國 社會構造의 歷史的 特徵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發展途上地域보다 所得水準이 높은 라틴아메리카에서 不平等性이 큰 것은 興味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全體的으로 볼때 發展途上國의 國內 不平等性이 先進工業國의 그것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表2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現象을 說明하는 理論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充分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에대한 Frank의 理論을 보기로 하자. 그는 어느 나라가 中心資本主義와 國際的인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衛星化되고, 그 衛星國 内部에서는 “國內中心——國內衛星”關係가 展開된다고 指摘하고 있다.

「일단 一國內지 一國民이 外國의 資本主義의 中心國의 衛星國으로 轉落하면 곧 中心國—衛星國의 착취적인 構造가 國民의 經濟的, 政治的, 社會的 生活를 組織化해서 支配하게 된다. 資本主義의 諸矛盾은 國內段階에 再生되어 國內中心部에서는 發展方向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고 國內衛星部에서는 低開發 方向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¹⁵⁾ 여기서 Frank는 國內中心部가 無限히 發展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지는 않다. 그 發展은 世界的 中心部에 대하여 衛星의 地位에 있기 때문에 限界를 가지고 있음은 말할 必要도 없다.

Frank의 이 議論은 理論的으로 明快하기는 하다. 그러나 “中心—衛星”關係의 概念은 既存의 社會科學의 諸概念과 比較해서 애매할뿐 아니라 파악하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지적한 “國家”가 아주 捨象되어 있기 때문에——특히 脫殖民地時代의 南北關係를 念頭에 둘 경우에는——問題에 대한 第一次的 接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는 Frank 以前에 福祉國家論이라는 다른 立場에서 같은 問題에 接近하려고 했던 注目할만한 論者인 Myrdal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國際間的 經濟的 不平等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경향은, 個個의 富裕한 國家의 内部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比較할때 두드러지게 對照的이다. 富裕한 國家에서의 最近 數世帶의 추세는 機會 均等이 增大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이 發展은 加速的인 發展으로서 지금도 慣性을 더해가고 있다.

大部分의 貧困한 國家에서는 個人間, 階級間, 地域間에는 從來와 같이 커다란 内部的 不平等이 存在한다. 그중 많은 國家에서는 不平等이 지금도 增大하고 있다」라 하고 있으며,

15) A.G. Frank : 「前掲書」, p.37.

「이 2개의 不平等間에는 극히 밀접한 因果의 相互關係가 있다」고 한 Myrdal의 指摘은¹⁶⁾ 극히 선명하게 이 問題에 着目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現象에 대해 그는, 一國內의 一構成地域 내지 一構成部分에서 일어난 擴張의 國內的 波及效果는 經濟的 發展水準의 하나의 關數이며, 發展水準이 낮을수록 一構成要素의 擴張은 他的 構成要素에 逆流效果의 영향을 미쳐 不平等을 增大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富裕한 國家는 最近 점점 더 福祉國家에 接近하고 있는데 反하여, 많은 貧困한 國家는 政治的 民主主義의 未成熟 때문에 國內的 不平等을 助長하는 權力 構造를 溫存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¹⁷⁾

이 Myrdal의 議論은 國家問題의 重要性을 示唆하고 있다는 점, Frank가 考察의 對象에서 除外한 富裕國의 平等化 傾向까지도 論理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우리들에게 示唆하는바가 많은데, 그의 理論展開의 基本概念인 “波及效果”, “逆流效果”도 Frank의 中心-衛星 關係와 마찬가지로 經濟理論의 으로는 애매한 개념으로서 理論的으로 더욱 發展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Frank의 議論은 우리들에게, 先進世界에 의한 富의 收奪에 대하여 發展途上世界의 支配階層이 그 부담을 非支配階層에 轉嫁하는 매카니즘이 存在하고 있음을 환기시켰으며, Myrdal의 議論은 發展途上國家가 무엇때문에 平等主義的 福祉政策을 實行할 수 없는가 하는 問題를 追求할 必要性을 示唆하고 있다.

2. 自立化를 위한 開發戰略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 發展途上諸民族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는 단순히 通說的인 南北問題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國際的 不平等만이 아니라, 그것과 國內的 不平等이 聯關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聯關性을 생기게 하는 것은, 南北問題를 登場시킨 그 歷史的 主體인 發展途上國의 開發戰略 및 性格인 것이다. 또한 植民地時代와는 달리 自立化를 지향하는 發展途上 諸民族은, 여러가지 곤란이 예상되어 지기는 하나, 原則的으로는 그러한 國家를 選擇했고 또한 그러한 開發戰略에 영향력을 行使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問題는 重要的 것이다.

특히 國內的 不平等의 解決은, 諸國家에 의해 構成된 國際諸機構가 개입할 수 없는 問題로서, 住民은 이를 自國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으며, 또한 國際的 不平等에 대해서

16) G.Myrdal ; 「前揭書」, p.5,10.

17) G.Myrdal ; 「前揭書」, pp.47-48.

도 여러가지 非政府系의 國體的 運動體의 影響의 有效性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의 國際政治의 發展段階에서는, 여전히 國家를 媒介로한 影響력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着目해서, 지금까지의 南北關係 展開過程에서 南側 諸國家가 취해온 國際的·國內的 開發戰略을 한번 뒤돌아 보기로 하자. 國際政治 展開라는 면에서 볼때, 앞서 II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歷史的 條件을 背景으로 해서, 援助의 擴大, 先進工業國 市場의 開放, 交易條件의 改善을 要求하는 것 등을 中心으로한 開發을 위한 世界的 組織化라는 方向으로 追求해 왔다. 따라서 주로 國聯을 무대로한 여러가지의 開發問題 國際會議에서의 南側諸國의 강력한 要求에 대해서 北側은 受動的·消極的인 것은 하나 어느 程度의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고 있다.

現段階에서 成果는, 1974年 國聯總會가 채택한 新國際經濟秩序樹立宣言과 諸國家의 經濟的 權利義務憲章에 集約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國內的으로는 開發計劃의 策定과 實施를 함에 있어 國家가 社會資本部門, 基幹產業部門의 建設과 運營에 참여하는 외에 財政投融資나 保護關稅政策 外資規制政策을 통해서 民族資本의 成長을 助長하고 크고 작고간에 農地改革의 實施나 農村開發을 도모하는 등 말하자면 國家資本主義的인 開發戰略을 進行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戰略의 展開에 의해서 南側이 獲得한 一定의 成果——先進工業國側의 一定의 양보와 南側에서의 工業化의 進展等——는 결코 過小히 評價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南側은 점점 더 貧困化하고 있으며 困難은 점점 더 增大하고 있다는 類의 評價가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南側의 마크로적인 指標에서 나타나고 있는 南側의 成長은 成長으로서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全 途上國이 이러한 方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一部 產油途上國이 達成한 高所得 水準과, NICS의 高度成長은 現代의 歷史的 條件下에서 처음으로 許容되어질 수 있는 世界經濟狀況의 變化임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의 面만을 보아서 南北問題의 將來를 樂觀的으로 展望하는 것은 變化過程의 一切를 無視해 버릴만큼 一面的이라 할 것이다.

南側의 一部에서 일어난 一定의 變化나 成長이, 世界가 國際的인 經濟의 不平等을 解消하는 方向을 向해서 거보를 내디디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國際政治의 무대에서 南北이 서로 다투고 있는 사이에 先進資本主義의 對外經濟關係 또한 크게 變化했다. 西歐와 日本이 戰後復興을 完了함과 同時에 西側先進世界全體에 波及된 새로운 產業革命이라고 할만한 巨大한 技術進歩는 世界貿易, 國際資本移動, 企業進出의 構造

나 形態를 크게 變化시켜, 發展途上國에 대해서, 自立化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새로운 問題——예를 들면 多國籍企業의 行動規制나 技術移轉의 促進 債務問題 等——를 차례 차례로 提起하고 있다.

國際政治面에서 南側發言이 增大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際經濟의 現實에서 볼 때 先進國資本의 主導權은 여전히 強力하다. 開發過程에서 發生하는 開發資金不足, 債務累積, 國際收支의 어려움을 완화해 보려는 南側의 政治的 要求를 逆利用해서, 南側에서 進行되고 있는 急激한 社會構造의 變動과 더불어 激增하는 低賃金 勞動力의 利用을 目標로 해서, 西側先進企業은 生産의 國際化를 推進하고 있으며, 最近 特히 70年代에는 西方先進世界의 경기침체에 따른 遊休化하기 始作한 貨幣資本의 高利貸付를 增加시키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南側諸國이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려고 하는 開發戰略은, 國內의 으로는 先進世界의 近代的 生産諸力을 빨리 導入하는 方法이고, 對外的 으로는 世界的 規模에 달하게 된 거대한 生産力과 그에 따라 變化되고 있는 國際資金·商品의 흐름을 國際의 으로는 組織化해서 管理하려는 方法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方法은 거대한 國際의 生産力의 到達點을 大前提로 해서 그 共同利用을 통해 先進國과의 相互 依存의 世界를 形成하려는 方向이다. 南北問題 解決의 하나의 方向으로서 이러한 方法은 全面的으로 否定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先進資本主義世界의 토양에서 그 必要에 따라 形成된 既存의 生産諸力의 利用을 基準으로 한 이 國際的·國內的 開發戰略은 이미 많은 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既存의 近代的 生産力을 스스로 창조해 온 諸國이 이를 지탱하는 重層的인 生産力의 體系와 그것을 利用하는 社會的·經濟的 基盤을 가지고 있는데 反하여, 이러한 기반을 갖지 못한 途上國의 無批判的인 導入은 市場的·技術的 對外從屬의 構造를 強化시켰을 뿐만 아니라, 너무 急激한 社會變動과 그에 의한 遊休勞動力의 급증 國內的 不平等의 擴大를 가져왔다. 때문에 이러한 問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可能的 限 土着의 技術體系에 기초한 農村社會에서의 農工結合을 基軸으로 해서, 必要에 따라 보다 廣域的인 地域을 對象으로 하는 半近代的인 技術에 기초한 中規模 工業을 開發해야 하며, 이러한 中間的 工業의 必要에 뿌리박은 國民의 規模에서의 近代的 生産力의 選擇的 導入과, 그 周邊에 있는 勞動集約的인 關聯中小企業의 育成이라고 하는 開發戰略이어야 한다. 從來의 開發計劃에도 農村開發이나 中小工業의 育成을 부르짖기는 했지만, 언젠나 그 方向은 近代的 生産力 → 關聯中小工業 → 農村開發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긴 諸困難이나 國內的 不平等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開發方向을 逆轉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戰略은 世界經濟로부터 切斷이나 아우타르키의 形成, 近代的 生産力의 全面 否定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近代生産力의 無差別한 혹은 海外市場의 可能性, 資金調達이나 合作會社 設立의 可能性이라는 國外的인 要因을 基準으로한 導入에서, 國內의 必要에 따라 經濟의 自立化 方向을 기준으로 해서 選別的인 導入方式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¹⁸⁾ 라고 本多教授는 말하고 있다.

本多教授의 開發戰略은 지금까지의 開發戰略과 反對方向의 戰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開發戰略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從來의 開發戰略을 가지고는 中心部에 대한 從屬이나 國內的인 所得의 不平等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때 美國이 英國의 從屬에서, 日本이 美國의 從屬에서 벗어났으며, 현재 NICS도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나 從屬에서 벗어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本多教授의 理論을 가지고서는 이를 說明하기가 어려울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나라가 어떠한 開發戰略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各國의 事情에 따라 決定할 問題가 아닌가 한다.

V. 結 論

南北問題는 오늘날 國際經濟的인 면에서나 政治的인 면에서 重要한 問題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그 內容은 앞서서도 言及한 바와같이 富國과 貧國과의 所得格差, 貧國內에서의 所得格差 問題이다. 이러한 問題를 어떻게 解決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절실한 當面課題이다. 그러나 이 問題가 前面에 登場한 것이 時間的으로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南北間의 利害關係가 얽히어 解決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理論的인 定立 또한 아직은 방황하는 狀態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理論의 方向은 대략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하나는 外國의 技術, 資本, 市場에 重點을 둔 開發戰略 理論이고 다른 하나는 國內의 技術, 資本, 市場에 重點을 두는 開發戰略 理論이다. 어느 理論이나 完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결국은 選擇의 問題일 수 밖에 없다.

發展途上國이라 할지라도 그 歷史的·經濟的·社會的·政治的인 背景이 다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開發戰略을 選擇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個個의 發展途上國의 事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 아닌가 한다.

18) 本多健吉編; 「前掲書」, pp.19-21.